

「2006 국제교통물류박람회」 부산 개최

- »»» 행사명 | 2006 국제교통물류박람회
- »»» 기간 | 2006년 11월 7일(화)▷11일(토)
- »»» 장소 | 부산 벙스코(BEXCO) 제 1,2 전시홀
- »»» 전시규모 | 140개사 600부스
- »»» 참가대상 | 아태지역 62개국 장관급 대표단 및 국제기구 대표급 인사 등 1천여 명, 국내도로교통 관련 공기업, 일반업체, 전문가, 학생, 공무원 등
- »»» 장소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통-인프라개발 목적의 UN ESCAP 장관회의의 부산에서 개최

2006 UN ESCAP 교통장관회의가 오는 11월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부산 BEXCO에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공동주최로 열리게 된다. 국제연합 아시아. 태평양 경제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의 모태는 1947년3월28일 본부를 상해에 두고 아시아 및 극동 지역의경제재건 지원을 위하여 출범한 ECAFF(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or East)였다. 그러다 1974년 명칭을 ESCAP으로 변경하고 경제분야에 국한되었던 활동범위를 경제-사회까지, 대상지역도 아시아-극동지역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확대시켰다.

1949년 방콕으로 본부를 이전한 UN ESCAP은 유엔 경제사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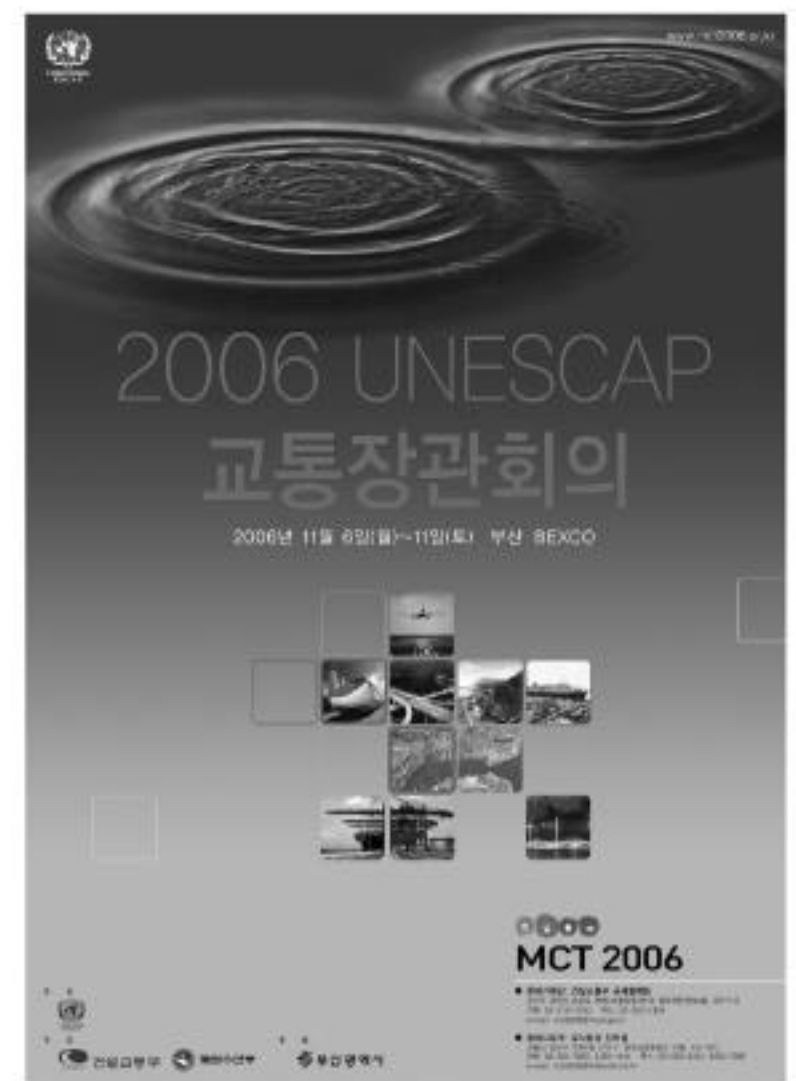
UNESCAP Ministerial Conference on Transport 2006

MCT 2006 엠블렘

한국적인 붓 터치로 개최국인 한국과 교통물류를 의미하는 원(바퀴)을 표현하고 MCT 2006행사를 통해서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분야가 함께 전진해 나가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

회(ECOSOC) 직속 지역위원회로서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서아시아 등 4개 지역위원회 가운데 62개 회원국, 추정인구 35억 명으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 간의 기구로서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가난, 질병, 인프라부족,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4년 10월 20일, 북한은 1992년7월31일



MCT 2006 포스터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매년 1회 총회가 개최되며 회원국 각료급이 참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김학수 씨가 사무총장에 보임해 있으며 아시아육상교통망개발(ALTID)계획사업의 지원을 위해건설교통부 직원 1명이 파견돼 있다. UN ESCAP 교통장관회의는 1996년 제 1차 인도 뉴

텔레회의의 당시 5년 주기로 개최할 것을 결정한 뒤 우리나라는 21001년 제 2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금번 제 3차 회의를 유치했다. 규모는 62개회원국(준회원국 포함) 장관급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국제기구의 대표급 인사, 참가국 기업대표 등 1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서 개최될 교통장관회의에서는 아시아횡단철도(TAR) 정부간 협정식 체결 및 아-태지역 인프라개발에 관한 부산선언문 채택, 뉴델리 선언의 2단계사업(아시아 철도망-도로망사업 등 8개 분야 23개 프로젝트 '2002년~2006년) 실적평가와 3단계 후속사업 계획 확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부대행사로 2006 국제 교통-물류박람회 및 아-태 교통물류 비즈니스 포럼개최, 그리고 제 14회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와 대한교통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세미나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구성되어 추진 중에 있다.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UNESCAP 교통장관회의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주최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오는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개최될 '2006 UNESCAP 교통장관회의'는 건설교통부, 해양부 공동주관으로 '참가국 고위급회의(SOM)'와 '장관회의(MM)'로 나뉘어 열린다. 교통·물류인프라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선언문 채택과 아시아횡단 철도망(Trans Asian Railway) 협정조인

식이 있을 예정이며, 아.태 교통물류 장관회의의 상설화 및 향후 5년간 아.태지역내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등 주요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회원국 대표들은 대회 3일째인 11월 8일, A-B 두 코스로 나뉘어 한국기업을 견학하게 된다. A코스는 종합철도회사인 로템과 동북아물류 중심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신항만을 견학하며, B코스는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과 세계 최다 조선건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을 시찰한다.

2006 국제교통-물류 박람회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부산 벡스코 전시장 제1-2홀에 도로철도관, 항만-조선관, 물류관, 자동차-ITS관, 항공관, 도로교통-인프라관 등 총 6개 주제관에 국내의 도로-교통산업 관련기업 140개사가 참여해 자사제품을 전시한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교통-인프라산업을 아-태지역 62개국의 정부 및 재계 인사 1천여 명이 방한할 이번회의를 계기로 소개함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UN ESCAP이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에서도 우리나라가 우위를 선점할 전략이다.

박람회 참가기업에게는 참가비가 면제되며 전시부스도 3평당 30만원 선의 최저가로 제공될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즈니스 활동을 돕기위해 공신력을 갖춘 해외 바이어와 비즈니스 인사들의 초청에 정부가 최선

을 기울이고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행사기간 동안 기업설명회 및 해외 바이어와의 개별면담기회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시품목

철도관	철도, 선로구조물, 신호, 통신, 차량(한국형고속철도 포함) 및 부품, 역무자동화
항만-조선관	항만시설 및 운영, 항만, 항해, 통신 시스템, 조선기자재, 엔진 등
물류관	물류자동화시스템, 장비, 보관, 하역, RFID 등
자동차-ITS관	자동차, 검사기계, 지능화시스템, 위성DMB, 네비게이션, 지리정보, 교통통제, 차량제어, 감지 등
항공관	항공시설 및 운영, 항공기의 전반적인 성능 및 솔루션 등
도로교통-인프라관	도로 및 교량건설사업, 도로건설 자재 및 관련 장비, 도로교통 안전 시설 등

부대행사

아태 교통물류 비즈니스 포럼

2006년 11월 8일부터 2일간 개최된다. 박람회 참가기업과 국내외 투자자, 아-태지역 주요국가 정책담당자들이 함께할 비즈니스 포럼은 국가설명회, 기업IR, 개별면담 주선 등 박람회 참가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각국의 저명인사들의 기조강연을 비롯, 교통인프라와 물류 등 두가지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기업과 각 국가들의 사례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비즈니스포럼은 국내외 기업관계자와 투자자에게는 마케팅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창출기회가 제공되며, 아-태 주요국가 정책담당자에게는 교통물류의 최신

동향과 각종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14회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

올해 제 14회를 맞는 한국물류혁

신 컨퍼런스는 산.학.연.관의 최고 물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물류컨퍼런스로 물류이론과 혁신전략, 최신물류적용 사례 등의 최신 정보를 파악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2006년 11월 8일부터 11월 10일

까지 3일간 개최되며,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사)한국물류협회, 국제물류지원단, 한국유통물류진흥원, 인천대학교, 항만물류사업단, 매일경제, 물류신문 등이 공동 주최한다.

■ 포럼일정 · 프로그램

일 자	시 간	행사 및 발표 내용
11.8(수)	17:40~18:10	개회식 개회사 : 대한민국건설교통부장관 축사 : UNESCAP 사무총장
	18:10~19:40	기조연설 : 미국교통부장관, Wal-Mart 본사부사장, ADB총재
	19:40~22:00	공식만찬 : 환영사 로템사장
11.9(목)	09:00~11:50	Morning Session : Transport Financing Innovation World Bank 부총재, Macquarie Bank 본사부사장, A.D Little 자금 담당 부사장, JP Morgan 아태지역본부장, 혁신사례 : Alstom 부사장 [주제] 아태지역 물류 성장전망과 교통인프라 수요 예측 교통인프라 건설을 위한 Private-Public Partnership 성과 교통인프라 건설을 위한 새로운 financing 기법
	11:50~13:20	오 찬 [후원 : 부산항만공사]
	13:20~15:20	Special session : East Asia, the Logistics Hub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 5개국 장관의 만남 중국철도부장관, 일본 국토교통성장관, 대한민국건설교통부장관 싱가폴교통부장관, 러시아철도공사사장
	15:20~18:10	Afternoon Session : Logistics Innovation 7-eleven 일본대표, DHL아태본부장, Kimberly-Clark H.Q. Maersk동북아지역대표 혁신사례 연구 : 함부르크항만청장 [주제] 물류산업의 New Trend: M&A 제3자 물류(3PL)의 현재와 미래
	18:10~18:20	휴 식
	18:20~20:20	Korean Night 목적 :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한 국내외기업간의 네트워크기회 제공 참가자 : 비즈니스 포럼 참가기업 국내기업 : 로템, 대형 건설업체, ITS 관련업체, 자동차업체 등

※연사 및 일정변경 가능